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추가 위촉

전북자치도, 이회택 한국OB축구회장·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등 2명... 막바지 총력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결정을 앞두고 전 국가대표 체육인을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는 등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북자치도중앙협력본부에서 전 국가대표 체육인 이회택 한국 OB축구회 회장과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에 대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이회택 회장은 국내 축구의 전설로, 1966년 대한석탄공사 축구단에 입단한 이후 해병대·한양대학교·포항제철 등을 거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 전남 드래곤즈 감독,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하계올림픽 및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와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로, 2009년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팀에 선정돼 2010년 아시안게임까지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현재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으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두 명의 홍보대사는 기존에 위촉된 홍보대사 7명(FIFA 김유정 심판, 김동문·박성현·유인택·임미경·정소영 전 국가대표 선수, 김태연 전북 출신 트로트 가수)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북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 공식 행사 참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 지원 활동 등을 전개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에서 열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이회택 한국 OB축구회 회장과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현정화 감독은 “저의 경험과 열정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회택 회장 역시 “K-컬처 본향인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회택 회장과 현정

화 감독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전북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도전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서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28일까지 두 분을 포함한 홍보대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반드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유치도전을 선언 후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인으로 하는 ‘하계올림픽유치 TF’를 출범했다. 전담팀은 붙임 조성을 위해 올림픽 현장평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유치 기원 챌린지, 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 각종 이벤트 등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4일(현지 시간) 중국 하얼빈 평광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컬링 시상식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 女 컬링 ‘10전 전승’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예선 8경기부터 결승까지 승리

중국과 결승서 7-2 이겨... 2007년 창춘 대회 후 정상 탈환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18년 만에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인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펄스 설예지)은 지난 14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중국 하얼빈 평광 컬링 아레나에서 중국과의 대회 여자 컬링 결승에서 7-2로 이기고 우승했다.

예선 8경기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10전 전승을 한 여자 대표팀은 금메달까지 차지하며 이번 대회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의 금메달은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이다.

경기도청 소속의 여자 대표팀은 2023년부터 3년째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이들은 컬링 팬들 사이에서 ‘5G’로 불린다. 선수 다섯 명 중 네 명이 이름이 ‘지’로 끝나고, 설예은이 평소 먹는 걸 좋아해 별명이 ‘돼지’라서다.

한국은 후공으로 시작한 1엔드에서 1점을, 2엔드에서는 하우스의 절묘한 위치에 스톤을 안착해 경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2점을 스윙해 3-0으로 앞섰다.

3엔드는 중국이 2점을 획득했다. 한국은 4엔드에서 1점 앞서며 4-2로 마무리했다.

5엔드는 양팀의 치열한 승부 끝에 블랭크 엔드로 끝났다.

한국은 6엔드에서 1점, 7엔드에서 2점을 7-2까지 앞서 나갔다. 8엔드에서는 프리 가드 톨을 활용해 균하기에 들어가 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도민·도내 외국인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전북체육회 주최 ‘외국인과 도민 스포츠 통한 사회통합 세미나’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 이하 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 이하 전북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외국인·주민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세미나’가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하게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 특히,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외국인도 한마음이 되어 염원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만들어



내어,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이날 올림픽 유치와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은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퍼포먼스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전북이 국제적인 스포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와 도내 스포츠 행정이

및 언론인 등이 토포자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스포츠가 국적과 문화를 초월해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토포자들은 △지역 스포츠 행사에서의 외국인 참여 기회 증대 △전북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및 정책 확대 △다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내·외국인이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촉매제로 스포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학생선수 176명, 전국동계체전 출전

빙상·스키 등 6개 종목... 체전은 18~21일 강원도 일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8~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학생 선수 176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총 7개 종목에 17개 시·도에서 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전북 학생 선수단은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등 6개 종목에 출전한다.

특히 스키 알파인 종목에 참가하는

김찬 선수(설천중)와, 스키 보드 종목에 참가하는 정서영 선수(무주고)가 금메달을 노린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동계체육대회 참가 학생 선수단의 훈련 및 용품·장비비, 대회출전비 등을 지원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학생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대회가 학생 선수들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부안군민 토론회'

부안군민 토론회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금) 오후 2시
부안군청 2층 대강당